



정교회주보

한국 정교회 대교구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길 43

Tel (02) 362-6371

Fax (02) 365-2698

orthodoxkorea.org



마태오 제7주일

성 에브도끼모스 의인

(제6조 • 조과 부활 복음 7)

성 요한 크리소스툼 성찬예배

제6조 부활 찬양송 82

수도자 찬양송 85

성당 찬양송

주 변모 축일 시기송 178

사도경 : 로마 15,1~7 ... 봉독서173

복음경 : 마태오 9,27~35 112

(기타는 보통 주일과 같음)

"사람은 불의를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1고린토 13,6)

그리스도의 온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마태오 11,29) 성서는 그리스도의 온유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당신의 발자취를 따르라고 본보기를 남겨주셨고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으며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1베드로 2,21~23 참조)

성서를 읽다 보면 그리스도께서 침 뱉음과 조롱을 당하고 채찍으로 얻어맞고 십자가형으로 죽임을 당하면서도 이런 온유의 모습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놀라울 뿐입니다.

이 온유를 배워야 한다고 사도 바울로는 권고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순간들을 인내하라고 덧붙여서 우리를 가르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인내하면 구원을 받을 것'(마태오 10,22 참조)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 강론 중에서)

다볼산에서 변모하신 주님

다니엘 나창규 대신부



마태오 복음사가에 따르면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다볼산에 오르셨을 때, 이들이 보는 앞에서 변모하셨는데 그분의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그분의 옷은 빛처럼 하얗졌다.”(마태오 17,1-8 참고). 또한 마르코 복음에는 “주님의 옷은 이 세상 어떤 마전장 이도 그토록 하얗게 할 수 없을 만큼 새하얗고 눈부시게 빛났다”(마르코 9,3)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는 주님께서 변모하실 때 주님을 둘러싼 빛은 일반적인 빛과는 다른, 인간의 말로는 표현될 수 없는 창조되지 않은 빛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시는 빛이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빛으로 변모하실 때 죽은 이들을 대표하는 모세 예언자와 살아있는 이들을 대표하는 엘리야 예언자가 제자들 앞에 나타났다. 그들은 예수님과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세상을 떠나실 일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루가 9,31)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은 모세 예언자와 불마차에 태워 하늘로 들어 올려진 엘리야 예언자가 다볼산에서 주님과 만날 때 주님께서 빛으로 변모하셨다. 이는 죽은 이들과 살아있는 이들의 부활과 재림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로써 죽었던 옛 성인들과 살아있는 모든 성인들이 부활하여 창조되지 않은 주님의 빛 속에서 행복을 누리는 모습을 통해, 빛의 자녀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도 천상의 낙원에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기도 하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보게 된 제자 베드로(믿음), 야고보(소망), 요한(사랑) 중 베드로 사도는 이 빛 속에 참여한 일이 얼마나 강렬하고 행복했던지 지금 같은 영광이 지속되었으면 하는 생각에, 꿈을 꾸듯이, 세 분을 위해 초막을 지어 드리면 좋겠다고 말하는 순간, 구름 속에서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마태오 17,5)라는 소리를 듣고서야 정신이 들었다. 이러한 강렬한 경험을 하게 된 사도 베드로는 더욱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 어떠한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죽는 순간까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였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 영광스러운 빛으로 변모하셨다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교회 교부들은 창조되지 않은 주님의 빛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영성 생활에 더욱 매진하게 되었다. 특히 많은 수도사들이 ‘예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빛 속에서 살고자 하는 희망으로 산속에서 고행하며 노력하고 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나는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는지, 오늘도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루를 보냈는지 스스로 검증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겠다.

기도의 힘

아타나시아 봉사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해 없는 낮과 같고, 달이 없는 밤과 같다는 데 많은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어디에도 빛이 없다고 느낍니다!

이런 때에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멈춥니다. 곧, 다른 사람의 문을 두드리길 멈추고,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으려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성인들의 삶에 관한 책을 펼쳐서, 성인들은 어려움을 어떻게 맞닥뜨렸는지, 어떻게 울부짖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기도했는지, 역경과 시련이 어떻게 성인들을 막다른 골목에서 구하여 곧바로 낙원으로 인도하였는지를 살펴봅니다.

저는 요르고스를 기억합니다. 그는 서른 살의 군인이었는데, 부대 내에서 큰 사고를 당해서 거의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 당시 성인처럼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던 파이시오스 수도사(1924-1994)가 수로티(Souroti: 그리스 북부 테살로니키 외곽에 있는 마을)에 있는 수녀원에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곧바로 수도사님을 만나기 위해 수녀원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수녀들은 수도사님이 지난밤에 철야예배를 드린 뒤 쉬고 있으며, 따라서 그의 휴식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절망적인 심정으로 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야단법석이 일어난 것을 알아챈 파이시오스 수도사가 밖으로 나와 지극한 사랑과 연민의 마음으로 그 어머니에게 다가가 말하였습니다. “기도와 금식으로써 당신의 아들은 깨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군인의 온 가족은 간절히 요르고스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요르고스는 신현축일에, 그러니까 온 가족이 2년 반 동안 열렬히 기도한 뒤에 깨어났으며,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가 서둘러 허겁지겁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세와 방식으로 될 때, 그 기도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암호를 해독하여 우리를 천국과 연결시키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는 두려움과 (물리적인) 거리를 사라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것을 없애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집 안에서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기도할 때, 저 멀리에 있는 누군가를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를 생각하고 그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이 제아무리 멀리 있을 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천사들은 그를 찾아내어 모든 악과 유혹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줍니다. 천사들은 우리의 겸손한 기도를 받아서 높고 높은 천상의 하나님 옥좌 앞으로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구세주 변모 수도원 축일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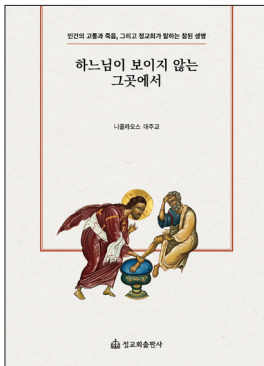
오는 8월 6일(토), 축일을 맞는 수도원 공동체의 모든 분께 하느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하시길 기도하며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도원 축일 성찬예배와 故 소티리오스 대주교님의 40일 추도식이 당일 9:30분에 시작됩니다.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소속 성당을 통해 미리 알려주시면 식사 준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절 버스는 없으니 개별적으로 오시면 됩니다.

주간 예배 안내

※ 8월 6일(토) 오전 9시
구세주 변모 축일
축일 조과 및 성찬예배

■ 신간 소개



하느님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 인간의 고통과 죽음, 그리고 정교회가 말하는 참된 생명 | 니콜라오스 대주교 지음 | 요한 박용범 옮김 | 정교회출판사 | 216쪽 | 12,000원

소 식

■ 40일 추도 예배

故 소티리오스 한국 초대 대주교의 40일 추도식이 7월 23일(토), 서울 성 니콜라스 주교좌 대성당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이날 추도식에는 국내 그리스도교 지도자들과 관계 부처 대표가 참석하여 추도사를 통해 고인의 47년 동안 이어진 한국 사목의 영적, 사회적 기여를 기리고 칭송하였습니다. 바르톨로메오스 총대주교께서도 감동적인 추모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고인이 13년 전(2009년), 성령 축일 월요일에 작성했던 유언이 주보에 실려 배부되었습니다.

추도식이 끝나고 약밥으로 만든 폴리바가 모든 참석자들에게 나누어졌으며, 준비된 오찬을 함께 했습니다.

■ 성모안식 축일 준비

8월 15일 성모안식 축일을 맞이하여, 8월 1일부터 14일까지 엄격한 금식이 시작됩니다. 또한 매일 저녁에는 '성모 소기원 의식'을 드립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성모님의 큰 축일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8월 6일 구세주 변모 축일에는 생선류가 허용됩니다.

표지 사진 설명



요르단강

이 강에서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다.(마태오 3,13; 마르코 1,9; 루카 3,21)

팔레스타인 지방의 시리아에서 발원하여 남쪽으로 흐르며 갈릴레아 호수를 지나 사해로 흘러 들어간다. 해수면보다 낮은 강으로 길이는 약 251km이다. 평균 폭은 30m 정도며, 수심은 가장 깊은 곳이 4미터를 넘지 않는다. 계절에 따라 수량의 변화가 크다.

출애굽기에 따르면 이집트에서 탈출한 유대인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 이 강을 건너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가나안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역사적, 종교적으로 성스러운 강으로 성서에 많이 언급된다.